

박성현, 내년 시즌 골프여제 꿈꾼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티뷰론 골프클럽에서 열린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 신인상을 동시에 석권한 박성현이 올해의 선수상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휩쓴 '슈퍼루키'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내년 시즌에는 '골프여제'의 자리를 노린다.

LPGA 투어 신인상과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 등 3관왕을 차지한 박성현은 지난 4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불과 1년 전 한국여자프로골프

(KPGA) 투어를 평정한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을 때만 해도 이렇게 주목 받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여는 신인처럼 1승을 목표로 했다.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받지 못한 신인상을 받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품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즌 초반부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경쟁력을 입증한 박성현은 7

내년 2월 '아시안 스윙' 출격 준비...3승 목표

“내년에는 마지막까지 우승 놓고 경쟁하고파”

월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캐나다 퍼시픽 오픈에서 두 번째 정상에 오른 뒤 39년 만에 LPGA 투어를 평정한 최고의 신인으로 각광을 받았다.

박성현은 올 시즌을 최고의 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해 '100점 만점에 75점'이라는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신인으로서 많은 것을 이뤘지만 우승권에서 경쟁한 만큼 아쉬운 순간들도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즌 최종전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막판 우승 경쟁에서 밀려난 것을 아쉬워했다. 박성현은 “내년에는 마지막까지 우승을 놓고 경쟁하고 싶다. 3승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렉시 톱슨(미국)에 밀려 2위에 머문 최저타수상에 대한 미련이 남았는지 “사실 마지막에는 욕심을 냈지만 받지 못했다.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올 시즌 여러 지표에서 KPGA

시절보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지만 비가 내리거나 강풍이 부는 날에는 경기력이 떨어졌던 약점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현은 “비림이 많이 부는 날이면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탄도가 높아 비림이 많이 부는 날에는 약한 것이 사실이다. 탄도를 낮출 생각은 없지만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족했던 25점을 채워가겠다고 약속한 박성현은 이달 중순께 미국으로 건너가 내년 시즌 준비에 돌입한다.

아직 내년 시즌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바하마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건너뛰고 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안 스윙'을 겨냥하고 있다.

2018년 박성현이 골프 역사에 또 다른 발자취를 남기며 골프여제의 칭호까지 얻을 수 있을지 세계 골프계가 주목하고 있다.

뉴시스



‘머니 게임’ 프로야구 FA시장 올해도 ‘부익부 빈익빈’ 여전

지난해 이대호는 4년 총액 150억원에 롯데 자이언츠와 계약했고, 최형우는 KIA 타이거즈와 4년 총액 100억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본격적으로 100억원 계약시대가 열린 것이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위압감은 정말 대단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프로야구 FA(자유계약선수) 최대어들은 80억, 90억원대의 계약을 이끌어내고 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구단은 특급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증도 안된 외국인선수를 데려오려고 해도 1년 연봉으로 10~20억원을 줘야하니, 돈을 더 지출하더라도 확실한 선수를 잡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준척’들의 계약 소식은 상대적으로 적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들은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태풍이 휘몰아치고, 다른 한 곳에서는 적막함이 흐르고 있다.

◇올해 FA 스토브리그 최고 몸값은 누구?

단연 손아섭이다. 손아섭은 다른 구단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지만, 원소속팀 롯데 자이언츠에 남기로 결정했다. 롯데는 4년 총액 98억원을 손아섭에게 안겨줬다. 100억원에 육박하는 계약으로 선수의 자존심을 세워줬다. 중장거리 타자인데 정확성이 뛰어나고 발도 빠르다. 무엇보다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다.

황재균은 kt 위즈에 연착륙했다. kt에 포석이 된 황재균은 88억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입단을 결정했다.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른 kt는 황재균이 승부사 역할을 해줄기를 기대하고 있다. 황재균 역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구단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강민호는 롯데를 떠나 삼성 라이온즈에 새 동지를 틀었다. 롯데 색이 강한 선수였지만, 삼성에서 또 다른 야구 인생을 개척하기로 마음 먹었다. 4년 전 75억원에 받고 롯데에 잔류했던 강민호는 두 번째 FA에서 80억원짜리 재약을 터뜨렸다.

민병현은 두산 베어스를 떠나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강민호와 같은 80억원짜리 계약을 이끌어냈다. 롯데는 민병현을 영입하면서 손아섭, 전준우로 이어지는 국가대표급 외야 라인을 구축했다. 문규현은 2+1년 총액 100억원을 받고 롯데에 잔류했고 삼성 권오준은 2년 총액 60억원에 계약했다.

◇역대 FA 몸값 80억원 이상 선수는 14명

최고 몸값은 단연 이대호다. 지난해 150억원이라는 초유의 계약을 이끌어냈다. 최형우는 이대호에 못 미치지만 100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 올해 손아섭이 계약 98억원에 3년째로 큰 규모다. 박성민이 삼성에서 NC 다이노스로 옮길 때 96억원에 계약했고 지난해 삼성에서 LG 트

윈스로 이적한 차우찬은 95억원, 윤석민은 KIA와 90억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 있다. 그 다음이 황재균(88억원)이고, SK 최정(86억원), SK 김광현(85억원), 한화 이글스 김태균과 롯데 정우람, 두산 장원준이 84억원, 강민호와 삼성 윤성환의 몸값이 80억원이다.

그러나 이번 스토브리그 최고 몸값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올해까지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뛰었던 김현수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시장을 감안하면 9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의 계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A 신청을 한 선수 중 13명이 아직 계약을 하지 못했다. 구단들은 즉시 전력 선수가 시장에 있어도 보상금과 20인 보호선수 외 보상금 30%를 내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준척들에 대해서는 ‘오버페이’를 꺼려하는 분위기다. 대어와 준척들을 비교하는 구단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선수 ‘연봉킹’도 이대호 25억원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당대 최고 인기스타였던 박철순(OB)과 김재박(MBC)은 24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당시 2400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다. 1985년 장명부(삼미)가 프로야구 선수로는 최초로 1억원이 넘는 연봉 계약을 맺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연봉 1억원 선수는 많지 않았다. 1억원 연봉은 야구선수의 성공 잣대로 보여졌던 시기였다.

30년이 훌쩍 지난 현재는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 올 시즌 초 KBO가 파악한 등록선수 530명(신인·외국인 선수 제외)의 평균 연봉은 1억3883만원이었다. 연봉 10억원이 넘는 선수들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대호의 연봉은 무려 25억원이다. 한국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다.

“행동 바르고 사려 깊은 한국선수들, 수비는 잘해”

슈틸리케 前 감독, 독일 언론가 인터뷰



올리 슈틸리케(63·독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후훗이 강한 팀이라고 소개했다. 수비는 관철지만 공격은 다소 약하다는 평가도 곁들였다.

현지 미디어 벨트는 4일(한국시간) 슈틸리케 감독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한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던 만큼 내년 러시아월드컵에서 독일을 상대할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주목을 이뤘다. 슈틸리케 감독은 “독일 축구계에서 당신보다 한국을 잘 아는 이는 없다. 요하임 뢰브 감독 감독에게 조언을 할 부분이 있는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 없다”고 잘라말

했다. “뢰브 감독은 내가 말을 안 해도 한국을 잘 알고 있다. 내가 한국을 떠난 이후 많은 변화도 있었다. 코칭 스태프는 전문 교체됐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의 장점으로는 “전술적으로 잘 돼 있고 수비도 잘 돼 있다”고 했다. 다만 “해외에서 뛰는 선수 중 75~80%가 수비수다. 손흥민(도르트뎀)과 황희찬(잘츠부르크)을 제외하면 공격수는 유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우쿠스부르크의 지동원은 분데스리가에서 거의 뛰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격진의 위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예들려 표현했다.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뉴시스

박주호, 도르트문트 떠났다...K리그 복귀 후 국가대표?

주전경쟁서 밀려...러시아월드컵 위해 이적 결심

박주호(30)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 결별했다. 도르트문트는 5일(한국시간) “박주호와 상호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2008년 일본 리그 미토 홀리호크에서 프로 데뷔한 박주호는 이후 가시마 엔터프라이즈, 주빌라 이와타를 거쳐 2011년 스위스 명문 FC비젤에 입단해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

비젤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독일 분데스리가가 마인츠로 이적한 박주호는 2015년 도르트문트에 입성했다.

도르트문트에선 주전경쟁에 밀렸다. 주로 교체 선수로 뛰었다. 이적 첫해 분데스리가 5경기(선발 4경기)에 출전했고, 지난 시즌에는 2경기(선발 1경기) 출전이 전부였다. 올 시즌에는 단 한 경기에도 나서지 못했다.

팀내 입지가 좁아져 국가대표

에서도 밀려났다. 박주호는 2018 러시아월드컵 참가를 위해 이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호가 해외생활을 접고 K리그 클래식으로 이적하리라는 관측도 있었다. 실제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병역을 면제 받은 박주호에게 관심을 보이는 구단은 많다. 수원 삼성이 가장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